



## 生命活動過程의 東洋醫學的 研究

김구환, 권강범, 류도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양의학은 상고시대에 샤만에 의하여 시작 되었다. 샤만은 사악한 영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샤만의 精靈에 의한 질병발생론은 『黃帝內經』 이후 자연현상에 의한 질병관으로 대치되었다.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고대동북아시아인들은 精氣說을 도입하여 진일보한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생명활동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精氣說은 점차 精, 氣, 神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精, 氣, 神의 개념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 형성되었다. 동양의학에 있어서 精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精은 형질전달이라는 생명활동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氣는 생명활동현상의 중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氣는 유체적 특성과 원질적 특성으로 생명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神의 개념은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궁극적 지향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대 동북아시아인들은 우주와 인간을 하나의 有機體로 보았다. 우주와 인간은 氣에 의해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우주와 인간이 동일한 氣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天人合一思想이 성립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고대인들은 人身小宇宙論이라는 氣一元論的 세계관을 수립하였다. 인간의 생명활동현상은 인신소우주론에 의해 巨視的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생명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微視的으로 알 수 없었던 생명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동북아시아인들은 생명이 변화하는 과정을 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陰陽二氣의 흐름으로 나타내었다. 생명이 탄생할 때는 강한 열기가 발생한다. 생명현상은 탄생시의 열기가 발산되면서 진행된다. 인간은 열기의 발산이 한창 왕성할 때 자신의 형질을 후손에게 전달한다. 인간의 자연스런 사망은 열기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명활동현상은 거시적 인간관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다.